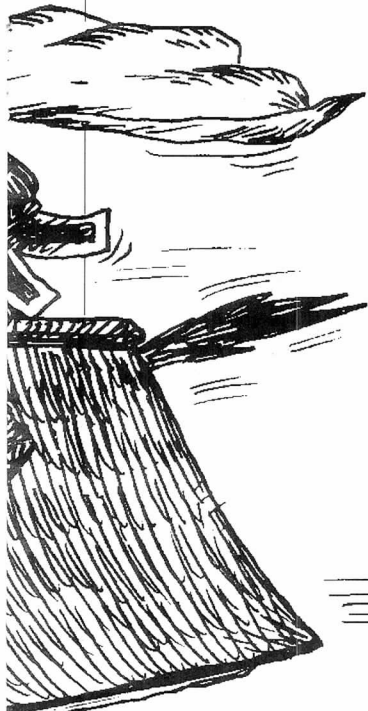


# 기호의 무덤 속에 파묻혀 사는 인간

작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김혜순

시인 · 서울예전 문예창작과 교수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일반 독자들이 아닌, 책을 쓰는 작가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이나고 만일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돈키호테》를 권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605년에 씌어진 《돈키호테》가 푸코가 말한 대로 가장 최초의 근대적 문학작품이며, 소설에 관한 소설이며, 작가에 관한 소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돈키호테》는 우리가, 혹은 소설의 등장인물이 현실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지평을 여행하면서 죽어도 넘지 못하는 '강'의 경계를 너무도 선명히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이데올로기든간에 그 이데올로기가 내뿜는 유사성의 귀신에 홀린 우리들이 중독된 인물들로서, 이 세계를 여행해 가는 삶의 궤적을 그 미친 광인 돈키호테가 너무나 '웃기게'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현실을 지평으로 삼은 주인공

만일 어떤 작가가 지금 소설이라는 어떤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치자. 그는 먼저 주인공이 처한 현실, 그 현실을 가장 중요한 지평으로 삼아 주인공의 행동의 궤적을 그릴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의 궤적은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세계,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의 궤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는 곳만 가고, 쓸데없이 공원에 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하면서 작가를 골탕먹이지 않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키호테는 자기가 보고 있는 현실의 지평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호들의 무덤인 '책'이다. 그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무덤에 중독된 사람이다. 그는 책, 그

중에서도 중세의 기사담대로 움직여 살도록 애쓰는 사람이다. 집안 가득 책(중세의 시집, 기사담, 영웅담, 민담)을 모아 놓고 있던 사람이고, 그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섭취해 오다

어느날 분명히 일어서서 그 밥인 책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작심한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기사가 횡행하던 이야기 속 세계로 착각하고 종횡무진 창을 겨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그가 아무때나 창을 쏘나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풍수때기 산초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할 때는 영락없이 사리 분명하게 현실의 이치를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그는 기사담과 관계없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르반테스가 만든 돈키호테라는 한 인물의 행동의 궤적을 통하여 작가의 소설쓰기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기사담과 관련된 상황에서만 미쳐 날뛰는 돈키호테, 그때만 유사성의 광란에 빠져 이야기 만들기에 정신을 놓는 돈키호테, 그가 바로 작가의 글쓰기 자세를 보여주는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서 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작가의 글을 쓰기 위한 의도이며 세계이며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 《돈키호테》의 주인공은

기호들의 무덤인 '책'에 중독된 사람이다. 집안 가득 책을 모아놓고 밥 먹는 것보다 열심히 섭취하다 책이 시키는 대로 살기로 한다. 여기서 책이란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한 세계이며 의미다. 그것대로 살고자 한 돈키호테는 문학의 표상이며 드러냄이다. 돈키호테의 행적과 괴리된 기호의 세계는 곧 문학이다.

돈키호테는 문학의 표상이며 드러냄이다. 그러나 창조된 언어 기호의 세계는 돈키호테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돈키호테의 행적과 괴리된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가. 돈키호테와 《돈키호테》란 소설 사이에는 광인과 시인만큼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것이다.

## '저자란 무엇인가'의 문제

그렇다면 세르반테스라는 소설가와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표상된 세계와의 거리는 어떠하겠는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하여 명확하게 '저자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고민한다. 그는 전쟁에 나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시집을 냈으나 전혀 대중의 청송과는 거리가 먼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면서 아마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문학적, 현실적 고민을 해보았던 모양이다. 그것을 그는 소설 안에서 회의한다. 먼저 세르반테스는 소설 전면에 자신을, 그러니까 저자 자신을 등장시키기를 꺼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돈키호테의 친구인 신부 한 사람이 세르반테스의 작품을 들고 말하는 이런 장면이 있다.

"그 세르반테스라는 작자는 오래 전부터 내 친구인데, 그는 시작(詩作)보다도 불행에 더 익숙한 사람이고, 그의 작품에는 약간의 독창성도 있지만, 무엇을 불쑥 내놓고는 결론을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속편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손질만 잘해준다면 지금은 없는 인기도 차차 충분히

높아질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 당신 방에 처박아 두시오."

그런가 하면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쓴 《돈키호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의 스페인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의 속편들이 무수히 나돌기 시작하자, 스스로도 제2부를 쓰면서, 톨레도 시장에 나갔다가 모로인의 가족 두루마리 속에서 아라비아말로 된 《돈키호테》의 실제 기록을 발견해 자기가 사서 자기 돈 주고 번역해 여기 실는다고 농성을 떨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소설을 다 써놓고는 헌사를 뭇로 붙일까 궁리하는 자신을 소설의 맨 앞에 붙여 그 당시 책들의 화려한 헌사를 자신의 고민으로 대체하여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 '살아 있는 텍스트'

《돈키호테》가 씌어졌던 시기에 이 소설은 웃음거리 연극으로 환영을 받았으며, 18세기엔 교훈을 주는 풍자소설로, 19세기엔 낭만적 인물의 표상으로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현세기에 돈키호테는 저자와 소설, 그러니까 의도와 언어, 유사성과 기호 사이의 행복한 상호작용의 종식을 보여주는 소설로 읽히고 있다. 그만큼 《돈키호테》는 살아 있는 텍스트이다. 말하자면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하나의 광인, 자기가 읽은 책에 미쳐 날뛰는, 중세라는 이데올로기에 미쳐 날뛰는 하나의 광인을 창조함으로써 '웃음'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중세 말기의 스페인을 뭉개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방학에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스페인 예술의 기본이 저 유럽의 심장부와는 달리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럽의 서쪽 경계에 '풍자'의 나라, 기호와 사물의 유사성을 비웃고 있는, 분리의 고통을 짜내 웃음을 걸러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경계에 있음으로 해서 유럽의 온갖 문화를 간지럽히고, 비틀고, 웃기며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와 피를 섞고, 싸우고, 부상당하고, 사랑을 나눴던 것이다. 그런 토양 속에서 세르반테스라는 인물, 그리고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태동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전통이 피카소, 미로, 가우디를 만들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아울러 나도 돈키호테처럼 한국과 그밖의 정보들에 중독된, 기호의 무덤 속에 파묻혀 살던 인간이라는 것도. ❀